

62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35차
일시	20. 10. 26. 18 : 30
장소	동아리연합회실

참석확인 (11 /12)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총
○	○	○	○	○	○	x	(대리)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 보고 안건

1. 단위별 특이사항 보고

- 사범대 : 후보 추천서명 한시적 폐지
- 사과대 : 후보 추천 기간 시작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일 개설

- Email : vote.cau@gmail.com

□ 논의 안건

1.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준

- 총학생회칙 61조 2항에 의거하여 집행국 중 2인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어 임명
- 집행국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 및 발언권 없음
- 집행위원장 이건우(경제17) 총 8단위 중 8단위 찬성으로 **가결**
졸업준비위원 강대서(국제물류17) 총 8단위 중 8단위 찬성으로 **가결**
- 현재 부선거관리위원장의 부재, 해당 업무는 중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수행해보고 필요시에 중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담하여 선거에 차질없도록 진행.

2. 11월 대표자 선거

- 후보추천서 등록 현황 : 총학생회(1건) 통일공대(1건) 인문대(1건) 사과대(2건) 예대(1건) 간호대,자연대(0건)
- 단위별 후보추천서 현황 공유 방식 논의 -> 글로싸인 계정 공유
- 선거개표를 위한 공간으로 102관 대강당 대관을 요청했으나, 25일은 가능하지만 26일은 다음날 졸업시험 관계로 대관이 어려움. 310관 지하 강의실 추가 대여 필요
- 룸미팅지 초안에서 사퇴한 선관위 위원 명단 교체 필요.
- 안전상의 이유로 개표 시에 각 선거운동본부별 1인만 현장참석이 가능토록 하며, 개표를 위한 별도 Zoom 회의 참여를 개표장 참여로 인정한다는 룸미팅 조항 추가
- 투표 시에 방역지침(손목 밴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방역절차 거친 후 재방문 요청 및 모바일 투표 안내한다는 조항 추가
- 일부 단과대 선거에서는 공지 성격의 단톡방에는 선관위 차원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총학생회 선거와 같은 규모에서 이와같은 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후보자 추천 기간 중 '서명 요청 강요'와 '공지 성격의 단톡방에서 서명 요청'은 금지한다는 제한사항 전달 필요.
- '투표 안함'에 대한 논의

총학생회 선거부터 학과단위 선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진행되는 특수상황.

일반적인 투표에서 선별적 투표는 보장되지 않음. 투표장소에서 신분확인 과정 후에 투표종이를 기표함에

넣지 않는 행위는 투표 안함의 개념이 아닌 무효표의 개념으로 계산됨.

위의 사례는 하나의 선거관리위원회 아래 하나의 선거일 경우라고 생각되나, 중앙대학교 대표자 선거는 유권자도 다른 완전히 다른 선거가 불가피하게 시스템으로 묶여있는 경우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음. 일부 단과대의 경우 '투표 안함'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을 때와 존재했을 때의 투표율 차이가 컸으며, 후자의 경우에서 참여율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투표 안함 즉 투표 보이콧을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고 생각됨. 1.선거 시스템 자체가 부당하거나 공정치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2.지난 통계상 단선의 경우, 대부분 투표율 50%만 넘길 경우 당선에 확실시되기 때문에 선거무산 유도를 통해 기권 혹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경우. 1번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진행을 해야하고, 또 그렇게 할 예정이기에 투표 안함이라는 선택지를 두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는 셈임. 2번의 경우, 다소 이상적일 수는 있으나 회원 모두가 주권을 갖고 찬성 혹은 반대 혹은 기권으로 그 의사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투표 안함이라는 선택지는 회원들로 하여금 주권행사를 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됨.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함.

- 논의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투표 안함이라는 선택지를 넣는 것보다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투표를 클릭하여 들어가는 기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관련 내용 업체 측에 문의 필요.

3. 총장단 공청회 관련

- 서면 질의응답 방향성도 열어두고 목적성을 실현할 수단으로도 고려 필요.
- 카드뉴스 형태로 연서명 추가 홍보 빠른 시일내로 진행. 연서명 참여도가 그럼에도 저조할 경우, 다른 수단을 빠르게 선택하여 공청회의 목적 달성이 필요.
- 연서명이라는게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면 짧은 기간내에도 충분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함. 충분히 홍보를 진행하되 금요일까지는 연서명을 마무리하여 임기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 기타 안전

- 2차 단위요구안 회신 독촉 필요.